



대한민국 건설 서밋 2007

건축 · 도시의 미래와 건설산업의 변화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한국건설 60주년 기념일'을 맞아 지난 6월 20일 삼성 코엑스에서 세미나를 개최했다. 건설교통부의 후원,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주관으로 이뤄진 이날 세미나에서는 건설산업이 어떠한 방향으로 발전되어야 할 것인가를 모색하는 자리였다.

에디터 | 김대환 · 사진 | 고하진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지난 6월 20일 건설교통부 후원으로 서울 코엑스 그랜드 컨퍼런스룸에서 권홍사 회장을 비롯한 미국과 네덜란드의 해외초청연사, 토론자, 방청객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미나를 개최했다. ‘건축·도시의 미래와 건설산업의 변화’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세미나에는 4명의 강연과 3명의 패널토론으로 진행됐다. 권홍사 회장은 “우리 건설인들은 과거 60년의 찬란한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새로운 미래 60년을 준비하고 있다”고 60주년 건설의 날을 기념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으며, “향후 한국 건설산업은 우리 도시와 건축, 국토의 획기적인 변화를 만들어 갈 것이다”라고 건설사업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첫 번째 강연자로는 미국 건설사업관리(CM)업체인 파슨스브링커호프의 해외담당 임원인 크리스토퍼 리자이 씨가 나섰다. 리자이 씨는 ‘건설산업의 미래’에 역점을 두고 “건설산업은 세계 경제의 주요 원동력으로 단순한 생존을 넘어 삶의 질 제고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며 “건설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진화를 위해서는 산업, 시장 그리고 기술 트렌드에 있다”라고 전했다. 그는 이러한 트렌드를 분석함에 있어서 인구 증가, 세계화, 경제적 활동과 추세, 인간의 행동 양상, 정치·종교, 환경적 요구 조건 그리고 기술적 발전 등의 핵심 요소들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축의 미래’라는 주제로 바통을 이어받은 올레 바우만(네덜란드 건축재단장) 씨는 건축을 문화와 철학적 의미로 풀어나갔다. 그는 “건축은 일반적인 대량생산 방식의 건축과 유명 건축가들이 설계한 극소수의 건축들로 점차 양분되고 있는 실정이다”며 세계 건축의 문화를 거론했으며, “단순한 건축에만 급급한 게 아니라 밝은 미래를 제시하는 철학적 건축의 역량을 되찾아야 한다”고 전했다.

미국 펜실베이니아대 도시계획대학장인 게리 핵 교수는 ‘세계 도

시화의 미래’에 대해 강연을 진행했다. 핵 교수는 “많은 새로운 도시가 건설될 것으로 상상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새로운 성장은 기존 도시 지역의 주변부에 연담화돼 나타날 것이다”라며 도시의 개발 모습을 한마디로 일축했으며, 그는 이어서 “모든 도시에서 친환경이 규범이 될 것이다. 이들 도시들이 겪는 초기의 경험들이 면밀히 검토될 것이다”라고 미래 도시의 키워드를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이뤄진 강연은 김진애 위원장(대통령자문 건설기술·건축문화 선진화위원회)이었다. ‘한국건설산업의 10가지 도전’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시작한 김 위원장은 “한때 국가발전의 견인차로 인정받았던 한국 건설산업이 3D산업이란 오명과 함께 사양산업, 부패산업이란 인식을 씻어내지 못하고 있고 최근엔 부동산 열풍으로 로또산업으로까지 불리는 등 기대, 신뢰, 존경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따라서 기대와 신뢰, 존경받는 산업으로 거듭나려면 체질개선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건설산업 본연의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한국 건설산업이 새롭게 태어나려면 정책, 품질, 소프트웨어산업으로 변모하고 공간창조산업과 글로벌산업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강연 이후 초청된 3명의 패널리스트들은 세미나 발표자들과 세미나 주제를 가지고 토론하며 짙막한 코멘트로 응대했다. 김기호 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기존 건축물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건설산업의 공공·공익성을 높이자고 역설했으며, 이규재 삼성물산 부사장은 건설산업의 미래 예측의 어려움과 산업 영역 내의 규제 철폐를 주장했다. 또한 김홍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원장은 건설산업이 살아남기 위한 방법으로 U-city 도입 등 산업간의 컨버전스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피날레를 장식했다. ☺

